

# 충북 2022년까지 장애인 500명 취업 지원

## 14억 투입... 내년부터 1인 1기 업체 상생맞춤형 추진

충북도가 내년부터 3년 동안 도내 장애인 500명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1일 도에 따르면 기업이 장애인에게 직업훈련을 하고 직접 채용하는 장애인 1인 1기 업체 상생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공공부문에서만 추진하던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민간부문으로 확대한 것이다.

도는 내년 150명, 2021년 150명, 2022년 200명 취업을 목표로 잡았다. 직업 훈련·취업 분야는 생산 활동, 상품관리, 사무보조, 환경미화, 급식 지원

등이다. 장애인들은 월 50시간씩 3개월간 직업훈련을 받으며 수당을 받는다. 기업은 이들을 현장에서 교육하면서 훈련 지원금을, 채용했을 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 도는 3년간 총 사업비 1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충북 지역의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2.81%로 의무 고용률 3.1%에 미치지 못한다.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은 참여 희망 비율이 9.6%로 매우 낮고, 취업이 어려워 실제적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신장섭 도 보건복지국장은 "상생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장애인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혜택이 주어지는 현장 중심의 사업이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시중 충북도지사는 8일 '제23회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유공자 34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 제23회 노인의 날 기념식 개최

### 노인복지 유공자 34명 표창·경로당어르신 행복나눔미 프로그램 발표

충북도는 8일 청주CJB미디어센터에서 도내 노인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3회 노인의 날 기념식 및 9988 행복나눔 경로당프로그램 발표회'를 성대하게 개최했다.

노인의 날(10.2)은 나라발전과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다해 오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자 국가에서 지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회장 김광홍)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1부 기념행사, 2부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회(시군 12개팀),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되었다. 1부 기념행사는 노인강령 낭독과 유공자(34명) 표창, 축사로 진행되었으며, 2부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회에

서는 지역 예선을 통해 선발된 노인들이 9988 행복나눔미 사업을 통해 그동안 배우고 익힌 기량을 선보였다.

이 날 노인복지분야 유공자로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이은수 지회장과 대한노인회 증평군지회 연홍희 지회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이시중 충청북도지사는 "이번 행사는 그간 가족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보답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진정한 효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따뜻한 정책과 사업으로 어르신이 즐겁고 행복한 충북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9월 26일 열린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내빈들이 테이프 커팅 이천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 확장 이전 개소식

### '콩콩나무' 놀이 체험실·놀이 상담실 본격 운영

도내 보육서비스 육아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해 온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가 충북도청 인근 대원간타빌 상가(2층)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지난 9월 26일 확장이전 개소식을 개최했

다. 그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도내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 보육에 관한 정보수집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 왔다. 이번에 이전한 장소는 관공서와 금

용기관, 상업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어 접근성이 좋고, 소회의실(15명 수용)과 대회의실(100명 수용)이 구비되어 있어 운영상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미세먼지로 외부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근육발달이 필요한 영유아를 위한 실내 놀이체험 공간과 언

어·미술치료실, 상담실이 새로이 추가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개소식에서 한창섭 행정부지사는 "보육은 나라의 근간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세상 밖으로 나온 아이들을 건강하게 잘 키워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보육의 3주체인 부모님·아이·보육교직원이 삼위일체가 되어 서로 소통하며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민관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맞춤형 육아를 one-stop으로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 육아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간 구성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특히,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놀이체험실과 아이의 발달단계에 맞춰 필요한 욕구를 알아보는 심리상담과 양육상담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 영유아를 둔 부모님들에게 인기가 많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덧붙였다.

놀이체험실 이용과 치료실 상담은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chungbuk.childcare.go.kr>) 또는 전화(☎043-231-8768)로 예약이 가능하다.



충북약사회는 7일 청소년의 건강생활을 위한 의약품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전달했다.

## 충청북도 약사회 청소년 영양제 지원

충청북도 약사회는 7일 도내 청소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100만원 상당의 종합영양제를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전달하였다.

충청북도 약사회는 2006년부터 1388청소년지원단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매년 영양제 지원을 통해 지역의 위기청소년들 건강지킴이 역할은 물론,

지역사회가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충청북도약사회 신태수 회장은 "도내 청소년들의 건강지킴이가 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회원들의 뜻을 모아 청소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활동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충북지역 특수학교 설립 승인... 2023년 3월 개교

### 청주·충주 2곳 '적정' 승인... 156명 수용 규모·396억원 투입

충북도교육청은 가장 청주특수학교와 충주기업도시 내 가장 용전고등학교 설립 건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승인됐다고 1일 밝혔다.

교육부는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한 중앙투자심사에서 충북교육청이 제출한 청주지역 가장 청주특수학교와 서충주신도시 가장 용전고등학교 2교에 대해 2023년 3월 개교하는 것으로 모두 '적정' 승인했다는 것이다.

가칭 청주특수학교는 청주혜원학교 과대과밀을 해소하고 발달단계 장애아동의 전문적 교육을 위해 유·초등 과정 특수학교로 설립되며, 율령동 택지개발지구 약 9400㎡ 부지에 지상 3층, 27학급(유 3학급, 초 24학급) 규모로 지적장애아동 156명의 학생을 배치하며, 396억 원이 소요된다.

이로써 가장 청주특수학교 신설로 발달단계 장애학생에 적합한 유·초등

과정 운영과 중·고·전공과 학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을 중점 운영하는 특수학교가 충북에도 설립된다.

이번 가칭 청주특수학교 설립은 현 정부 국정과제와 교육부 특수교육 정책에 부합한 학교급별 특성화 교육 가능 학교모델인 동시에 접근성이 뛰어난 도심지 택지개발지구 학교 설립으로 장애학생들의 학습여건 향상과 장애학생과 가족 모두 존중받고 있다는 사회적 환경을 체감하게 하는 등, 실질적 교육취약계층 지원에 큰 의미가 있다.

가칭 용전고등학교는 충주기업도시, 충주첨단산업단지 등 충주시 서부권 신도시 개발에 따른 약 1만4374세대

유입학생 배치를 위해 설립되며, 공동주택 개발 지연으로 2007년 학교용지가 설정된 이후 16년 만에 문을 열게 되었다.

이로써, 서충주 신도시에는 학교용지 6개소(초2, 중2, 고1, 초중1) 중 2018년 개교한 충주중앙탑초, 2019년 개교한 중앙탑중, 2020년 개교예정인 가칭 대소원2초중고에 이어 2023년 가장 용전고등학교 개교예정까지 4개 학교가 설립된다.

또 가장 용전고등학교는 충주기업도시 개발지구 내 약 1만4582㎡ 부지에 지상 4층, 25학급(일반 24, 특수 1) 규모로 약 294억원을 투입하여 600명의 학생을 배치할 예정이다.

국민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적 복지

# 제20회 충청북도사회복지대회 제1회 생거진천 복지박람회

2019. 11. 12(화) 11시  
진천 화랑관(진천군 진천읍 문화로 69-4)

주관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SSN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  
후원 충청북도 진천군

# 진천군 통합돌봄 사업 본격 운영

### 7일 출범식... 주거·의료 등 지역과 연계 서비스 제공 내년까지 읍·면 전담 인력 추가... 25개 주요 사업 추진

진천군이 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노인분야 선도사업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날 출범식에서 송기섭 군수, 충북도 이장섭 정무부지사, 김광홍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 회장, 보건·복지·의료·주거 분야 전문가와 종사자들은 지역 특색을 반영한 성공적인 생거진천형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위한 민·관 협력을 다짐했다.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주민이 사는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어울려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 보건, 돌봄, 의료, 복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사업

이며, 충북에서는 진천군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앞서 군은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7월 1일 조직 개편에서 선도사업팀을 신설했으며, 내년까지 읍면에 전담 인력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생거진천형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2년 간 사업비 42억 6천만 원을 들여 병원·시설 퇴원 준비 노인, 장기요양등급내외의 판정노인, 주민 참여형 거점 돌봄센터 이용 노인으로 대상을 분류해 25개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찾아가는 약손 한방진료, 찾아가는 안심 복지지도, 케어안심주책 지원, 스마트 안심 생활 지원, 이동지원서비스, 영

양급식 제공 서비스,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이다. 특히 주민 참여형 거점돌봄센터 사업은 지역 특색을 반영한 생거진천형 자주 모델이며, 18개 경로당을 동네 거점 돌봄센터로 지정해 단순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기능을 넘어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우리 동네 노인복지관'으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전문 교육을 이수한

동네 복지사를 배치해 이웃과 이웃을 연결해 함께 돌보는 생거진천형 복지 공동체를 만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주민들이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주거, 요양, 돌봄, 보건 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 삶의 질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말했다.



7일 생거진천형통합돌봄지원에서 열린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출범식에서 송기섭 진천군수(왼쪽 네 번째) 등 내빈들이 축하메이커를 자르고 있다.

## 충주시 '24시간 독거노인 건강상태 자동분석'

### 전대 연구팀과 최첨단 ICT 활용 '노인 케어' 서비스 개발

충주시는 건국대학교와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노인 돌봄 서비스 모델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국가 공모사업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자택이나 돌봄주택에서 보건 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 중

심의 맞춤형서비스다.

시는 지난 7월 전대 연구팀과 '커뮤니티케어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까지 인건증심점검, 데이터중심급급, 시스템중심 접근 기반의 ICT를 활용한 노인 케어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지역사회에 우선 보급하기로 했다.

연구팀은 지난 4월 '보건복지

부 2019년 보건 의료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선정돼 향후 3년간 4억5천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고 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연구팀은 사업참여대상자에게 '스마트인홈 애프터케어(Smart in-home aftercare)' 서비스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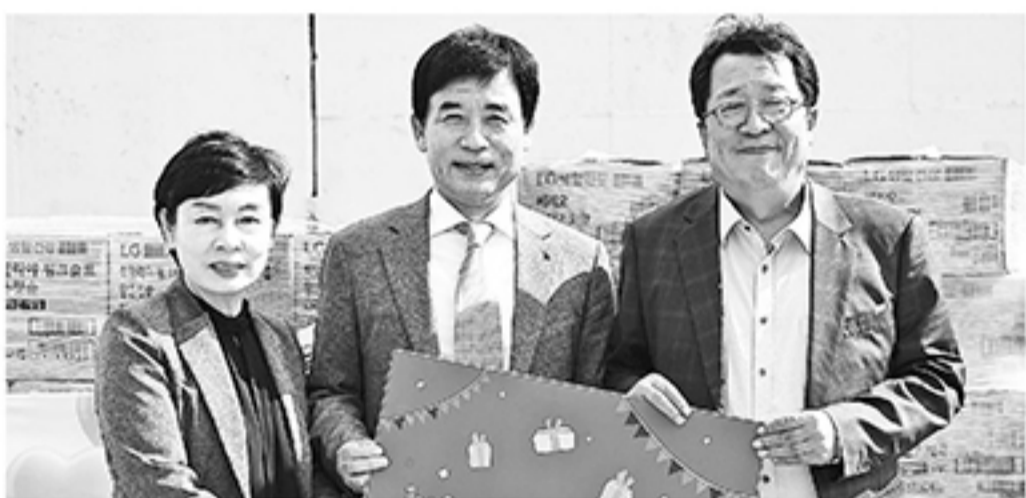
'스마트인홈 애프터케어'는 아이디어 솔루션즈가 개발한 첨단 ICT기기를 홀몸노인 가정에 설치해 노인에게 24시간 상시 활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시 보건소 및 관련 기관에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또 보호자가 희망하면 보호자에게도 데이터 전달이 가능하며, 데이터를 통해 홀몸노인의 활동 및 건강상태가 자동으로 분석되고 문제 발생 시 긴급 출동과 지원 서비스를 즉시 제공한다.

시는 연구팀과 함께 지역사회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하는데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시는 전대 연구팀과 이달 말 연구사업의 목표, 진행사항, 향후 활동에 대한 워크숍을 갖고 복지기관들과 정보를 교류하는 등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8일 (사)희망을 나누는 사람들 김정안 회장(가운데)이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소독등을 위한 기부물품과 장학금, 컴퓨터를 전달했다.

## '희망 나누는 사람들' 제천에 톡큰 기부

### 생필품·장학금·컴퓨터 등 8천만원 상당

사회 공익 단체인 사단법인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이 "취약 계층에 전달해 달라"며 생필품과 장학금, 컴퓨터를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에 8일 기탁했다.

이 단체가 이날 기부한 물품은 8000만원 상당에 달한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이번에 기부받은 물품을 관내 어려운 1600여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20여 곳에 푸드뱅크, 푸드마켓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장학금 720만원과 컴퓨터는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양순경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장은 "금일 지원된 물품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골고루 전달, 희망을 전파하겠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부사업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은 2007년 10월 설립돼 전국 7개 지부에 2만여 명 회원이 활동하는 사회 공익 단체다.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희망 나눔 장학금, 장학 도서, 컴퓨터, 문화 체험, 생활용품 지원 등 다양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김영석 사회복지출판·홍보위원장 박상준 편집고문김주필 김춘길  
(2858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 043-234-0840 FAX : 043-234-0849  
E-mail : cbssn@naver.com 홈페이지 : www.cwin.or.kr

## 제천시 '다함께 돌봄 센터' 1호점 개소



제천시가 강서 코아루파크 내에 '제천시 다함께 돌봄 센터 1호점'인 '희망돌봄놀이터'를 열고 개소식을 갖고 있다.

취학 전 어린이들은 어린이집에서 종일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맞벌이 부모는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아이들은 학원에 보내야 하는 부모의

고충을 덜고자 지난 14일 강서 코아루파크 내에 '제천시 다함께 돌봄 센터 1호점'인 '희망돌봄놀이터'를 열고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관성 충북 지역복지개발회 대표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시민 등 50여명이

참석해 현판제막식, 기념촬영, 기관라운당을 함께 했다.

"다함께 돌봄 센터란 돌봄이 필요한 만6~12세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상시·일시 돌봄, 방과 후 프로그램 연계 등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희망돌봄놀이터는 학기 중 오후 2시부터 7시,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제천시는 오는 11월까지 우리 돌봄놀이터, 한울타리돌봄놀이터, 온도돌봄놀이터를 추가 개소할 예정이며 2022년까지 연차별로 총 8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돌봄 서비스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며 다함께 돌봄센터(☎ 043-641-5430)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청주시 '예약 불필요 '즉시콜' 추진'

###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 원하는 시간에 즉시 이용 가능

청주시가 16일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고를 위해 '즉시콜' 제도를 시행한다.

15일 청주시에 따르면 콜택시 시스템과 유사한 '즉시콜' 서비스는 원하는 시간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늦어도 하루 전에는 예약해야 했던 기존의 방식과 달

리 필요한 시간에 전화하면 즉시 이용할 수 있다. 청주시의 이번 예약방식 개선은 이용객의 꾸준한 요청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전에 예약을 못하면 이용이 어렵고, 예약일에 이용객이 탑승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 갑작스러운 예약 취소가 발생하면 정작 이용이 필요했던 다른 이용객은

이용하지 못했던 기존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청주시는 기존 운영방식과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하루 5대(특장차 3대, 임차택시 2대)에 한해 사전예약제도 병행 운영한다.

사전예약 접수는 병원진료 및 등교, 출근을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우선 예약이 가능하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즉시콜 시스템 도입이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불편 해소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청주시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

### 필요한 사업 '한눈에'... 맞춤형 복지 상담 서비스 추진

청주시가 정보 부족으로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초기 상담자 모두에게 복지상담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상담서비스를 추진한다. 복지부가 오는 2021년 9월 도입 예정인 복지멤버십 제도 시행 전 서을 봉천동 탈북 모자 사건(19.7.31) 같은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청주시의 시책 사업이다.

복지 관련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오는 1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생계, 취업, 임신·보육·교육, 보건 의료, 노령, 장애인, 기타 위기별 지원 등 꼭 필요한 49개 사업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작성된 복지상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다양하고 복잡

한 복지혜택을 상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시는 상담신청자 중 위기가구임이 확인될 시 가장방문을 통한 현장 확인 및 긴급지원, 민간후원 등 서비스 제공으로 선조치해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하고, 선정기준 초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는 정기적 사후관리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복지상담 체크리스트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시민이 사회보장급여와 서비스를 편리하게 신청하고 꼭 필요한 복지혜택을 신청에 받을 수 있도록 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음성보건소 고혈압·당뇨 인식 팔찌 배부

### 음성군보건소가 14일부터 고혈압, 당뇨병을 치료 중인 음성군민을 대상으로 고혈압·당뇨병 질병인식 팔찌를 배부한다.

팔찌는 위급한 상태에 처한 환자를 발견한 사람이 신속히 대처해 환자상태가 심각한 상태로 진행되고, 사망상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안타까운 일을 방지해 주

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자 배부하게 됐다.

또한, 환자 자신이 고혈압·당뇨병 치료 중임을 인식하고, 약 복용과 운동, 영양관리 등 자기관리의 역할을 높여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심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하거나, 심각한 장애로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심

뇌혈관질환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 한편, 음성군보건소는 구급대원이 응급상황 현장 출동 시 의식이 없는 환자의 손목을 먼저 확인해 줄 것을 최근 음성소방서 측에 협조 요청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보건소에서 배부하는 질병인식 팔찌를 질환자 본인 또는 질환이 있는 부모님 등 주변의 많은 분이 착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 9월 푸드뱅크·푸드마켓 식품기부자 명단

- 푸드뱅크는 소외계층을 위한 식품 나눔 은행입니다 -

- 충북광역푸드뱅크 (주)에스엔푸드, C.신선 진천센터, GS리테일 발안물류센터, 롯데칠성 광명센터, CJ-농해 케어센터, CJ수원반도체, 대상 양지센터, 대상 용인저온센터,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북농협, 충북농협농협, 나눔축산운동본부, 중원랜드, 한우협회, (주)파나산, (주)대승푸드, 롯데푸드, 체리푸드, CJ우동(중평점), 송림푸드, 청주우동, 예버리치, CJ신선 덕평점, 롯데칠성 대전센터, 중앙제관(주), 롯데네슬레 청주공장, LG생활건강, (주)엘로드림, 송림푸드, 대상 덕평센터, 시아스 청주공장, 영농법인 무지개농장, (주)더불어, (주)피아씨푸드, (주)금강B&F, KGC인삼공사 충북지점, 투쟁물류, 침양식품, 리온에스, 주식회사 지지코리아
- 청주흥덕기초푸드뱅크 동양오스카충청청주지점, 롯데제과(주)청주영업소, 마늘보쌈, 삼익추어탕, 좋은아침, (주)계이씨푸드, 명동보리밥, 삼육두유사부대리점, 좋은아침, 피자허 청주대점
- 청주사랑나눔푸드뱅크 참조은우동, 엘리스(분령동), 백설우동, 홈플러스
- 스킵스플러스, 좋은아침(가경점), 파리바게뜨(개신점), 파리바게뜨(북대점), 바나야, 좋은아침(북대점), 두레주르(비하계통점), 단킨도너츠(강서점), 팡스팡스, 물렁민(지웰시티점), 이초곳메이커리, 금관마트, 동청주우뚜기, 초이스메이커리, 플로리안, 좋은아침(성안점), 좋은아침(성화점), 파리바게뜨(가경대우), 청도너츠, 바로구은빵, 도담영농조합법인, 청풍명월, 명성물류, 머거버식품, 자연솔푸드, 푸드클로리, 한솔, 비전센터, 뉴타운점, 울랑간타발점, 울랑점, 개신점, 수암골 영광의제인, 좋은아침 오송점, 서문우동, 용양서문우동, (주)떡과풍경, (주)민영, 김대현이끼리
- 청주제일푸드뱅크 파리바게뜨(원평점, 분평우성점, 금천부영점, 산남점, 농협하나로점, 용양호성점, 용양현대점, 건영점, 뉴타운점, 울랑간타발점, 울랑점, 개신점), 수암골 영광의제인, 좋은아침 오송점, 서문우동, 용양서문우동, (주)떡과풍경, (주)민영, 김대현이끼리
- 청주제일푸드뱅크 청주제일교회, 한기장복지재단, (주)한식식품, 두레주르 울랑점
- 청주제일푸드뱅크 청주제일교회, 한기장복지재단, (주)한식식품, 두레주르 울랑점

- 청주새마을푸드뱅크 좋은아침오창점, 파리바게뜨생용점, 두레주르한라점, 두레주르신원단지점, 기문촌은날, 그린하우스과자점, 오창출마트, 자갈치 민속떡집, 찰떡궁합, 광주기독교서점, 전원푸드, 낙원떡방
- 청주구세군푸드뱅크 주식회사 시아스, 두레주르 금천점지점, 파리바게뜨 분평점, 한솔 제2농장, 공천떡집, 금관할인마트, 해신수산, 두레주르 금천뉴타운, 락베오 베이커리, 행복떡집, 유산떡방, 파리바게뜨 청주제일점, 떡이랑, 두레주르 청주용정점, 파리바게뜨 청주용정역점, 영농조합법인 희어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청주용정점, 천영농조합법인, 정수기회(후서사), (주)월드이심일메이치규, 자연연합영농조합법인, 천영, 김가네 빵과기정떡집, 파리바게뜨 청주제일점, 주주떡, 서울우유치즈, 시아스우동, 두레주르 분평점, 목청정교, 금관할인마트 울랑점, 청주특산물(주), 무외에 두와
- 청원기초푸드뱅크 (주)우리농, 신과들F&C, 파리바게뜨 오창중앙점

- 중평군푸드뱅크 거림기계, GS슈퍼 중평점, 케이하우스, 금호송불갈비, 서산식품, 좋은아침 울랑점, 파리바게뜨 내수점, 한그루식품, 오뚜기, 단비상사, 단킨도너츠 중평점, 델리칸 중평점, 그린우동, GS25 중평대로점
- 괴산군기초푸드뱅크 진미식품, 괴산집곡, 신선나도, 신선촌, 운산식품, 제중당약국, 풀무원, 서민속, 유인속, 장국회, 락베오베이커리, 두레주르괴산점, 파리바게뜨괴산점, 매키로통상, 미미식품, 한살림축산식품, 주성베이커리
- 옥천군푸드뱅크 두레주르 엘마트점, 구가네 농이보급, 조마루 김지랑, 독도기든, 향운목, 미개한정식, 이기화로, 옥천청담토리리클럽, (주)한일푸드
- 영동나눔푸드뱅크 두레주르(김홍옥), (주)백영육가공
- 보은군기초푸드뱅크 (T. 543-6255) 서울우유(보은점), (주)서우항로, CJ-농해재단, 롯데

- 대월(청주, 충주, 대전, 오포, 안성), GS리테일, LG생활건강, 대상(일죽센터), 대전중앙물류센터
- 음성군푸드뱅크 CJ푸드빌, 꽃피는아침마을, (주)다농원 삼원농장, 영농떡방앗간, 김이박부대찌개, 단킨도너츠(금양), (주)이기가자연, (주)후드원, 김철철스머리국밥, (주)맑은해오름, (주)물우원, (주)맑은식품
- 진천군푸드뱅크 삼진푸드, 두레주르(성모병원점), 민사랑, 체리부르, 조인, 목우촌, 동원(이천,백암), 삼육두유, 파리바게뜨(덕산점)
- 진천나눔과기쁨푸드뱅크 파리바게뜨 진천장관점, 태남 메디스코, 신도식품, 윤지점, 김점식, 리브가왕만두떡방, 김수향, 델리칸(이월점), 에스엔푸드, 자혜식품, 명기떡집, CJ푸드빌, 해마로푸드서비스, 파스쿠찌, 행복떡집, 이삭식품, 명기떡집, 생거진천식품, 맑은해오름
- 충주기초푸드뱅크 고인동식품, 대우우동, 델리칸충주교현점, 떡보

- 의하루, 두레주르 주덕점, 롯데제과(주)충주영업소, 삼성청과우동, 삼일상회, 서울우유치즈충주대리점, 유원우동, 육사청과, 은혜청과, (주)미림농산, CS코리아, 자이원에프앤지, 충주청과, 하나로베이커리(충주점), 한아름청과
- 제천시푸드뱅크 건국우동, 두리메리케, 롯데제과 제천, 박달재씨푸드, 문우동, 씨알푸드, 오뚜기 제천점, 오뚜기 태생김치, 푸른촌, 풀이리인, 365할인마트, 크리 스프리크제천중앙점, 호수상사
- 단양군푸드뱅크 진천면사랑, 진천SN푸드, 음성CJ, 음성CJ(조진), 충주김치나라, 제천푸른촌, 롯데칠성, 일죽청정원, 제천씨알푸드, CJ 진천, 단양(주)정풍, 단양두순식품, 서울우유 단양대리점, 파리바게뜨 단양대리점
- 단양나눔과기쁨기초푸드뱅크 CJ-농해재단, 롯데칠성(청주, 충주, 대전, 오포, 안성), GS리테일, LG생활건강, 대상(일죽센터), 광주파리크라상업체, 신선초, 하림, 맑은식품, 한돈, 선데이푸드, 대상청정원

# 영동군, 생명존중의식 확산 노력 '성과'

### 예방 교육·생명 존중 캠페인·군민 인식 개선 '효과 특출' 44.0명서 평균 13.8... 도내 평균 26.7명 보다 확연히 낮아

생명존중 인식 확산을 위한 충북 영동군의 노력이 결실을 맺으며 자살률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영동군의 인구 10만 명당 연령 표준화 사망률중 자살률이 2017년 44.0명에서 2018년 13.8명으로 눈에 띄게 낮아졌다. 도내 평균 26.7명, 전국 평균인 24.7명보다도 확연히 낮은 수치다.

영동군은 2016년, 2017년 도내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지만,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과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해 통계청 발표 2018년 사망 원인통계 인구 10만명당 연령표준화 사망률 중 자살률이 13.8명으로 도내에서 가장 낮았다.

영동군의 최근 실제 자살자수는 2016년 24명, 2017년 26명, 2018년 11명이다. 이 같은 일관 결실은 영동군의 생명존중 인식 확산을 위한 노력이 뒷받침됐다.

군민들의 소중한 삶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한 프로젝트들이 지

역 곳곳에서 효과를 내며 주민들의 정신과 육체 모두 건강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짝꿍 홀몸노인 친구 맺기로 지역노인들 서로간 안부를 확인하게 하며 심적 안정감을 제공했으며, 군 경제과와 연계해 관내 사업체를 돌며 청장년 자살예방 교육을 강화했다.

지속적인 군민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1071명의 생명지킴이를 양성했으며, 올해 521가구에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했다.

지역 행사와 공공장소 등을 찾아 수시로 생명존중캠페인을 벌이며, 군민들의 인식 개선에 집중했다.

또한, 정신건강치료비와 우울

치료비 등 4천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정신건강에 힘썼으며, 경제·생활비 문제자에 대한 유기적인 복지연계로 삶의 질을 높였다. 최근에는 영동읍 6개마을 105개 반장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자살 위험자 조기발견 조기조치로 자살 없는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출중한 안전망 짜기’ 사업의 1회차 간담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었다.

군 관계자는 “자살을 단순히 개인문제로 방치하는 사회는 지역 전체의 건강을 지킬 수 없다”라며, “군민들이 지역 공동체의 테두리 안에서 희망과 안정을 느끼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월 27일 제1회 증평청소년상담복지박람회에 참석한 내빈들이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있다.

## 증평군, 제1회 청소년상담복지박람회

### 다채로운 프로그램·지역 학생들 공연으로 꾸러져

증평군이 지난 9월 27~28일 증평군립도서관 일원에서 제1회 청소년상담복지박람회를 개최했다. 박람회는 증평군과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이 주최하고 증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증평군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 주관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의 건전한 프래문화를 형성하고 공감능력을 높이기 위해 각종 상담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주요프로그램으로는 뇌파진로탐색, 신기한약 의사소통 코칭, 프레디저 진로탐색, 자아상태 분석, 사군자 기질검사, 힐링타로상담 등 청소년의 성격과 심리를 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선보였다.

행사에 참석한 증평군, 학부모, 학생, 지역 주민 등 1000여 명이 함께 증평행복교육지구 마

을학교, 진로체험, 청소년 상담복지 박람회 부스 등 55개의 다채로운 체험들과 지역 내 초·중·고 학교예술동아리 공연과 버스킹으로 알차고 풍성하게 꾸러졌다.

김병노 센터장은 “평소 접하기 힘든 여러 상담매체 및 도구를 체험해 보면서 상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증평청소년상담복지박람회가 또 하나의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착한가게 100호점 가입

### 아모르아트웨딩컨벤션서 가입·전달식 가져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일 착한가게 100호점인 영동읍 아모르아트웨딩컨벤션에서 착한가게 100호점 가입식 및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나눔 참여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영동지역 착한가게 100호점 탄생을 축하했다. 착한가게란 영동군 자영업에 종사하는 가게나 기업 등

월 3만원 이상의 정기적인 기부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가게를 말한다.

아모르아트웨딩컨벤션 박정일 대표는 “평소 나눔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생각해 나눔의 방법을 찾던 중 착한가게 가입을 결심하게 됐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착한가게 100호



영동군 영동읍 아모르아트웨딩컨벤션이 '착한가게' 100호점으로 가입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를 넘어 영동군의 모든 가게들이 착한가게가 될 수 있도록 주위에 나눔의 참 의미를 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세복 영동군수는 “다양한 업

종에서 나눔에 동참하여 100호를 맞이하게 되니 기쁘로 하나가 되는 것 같다”며 “앞으로 어려운 이웃을 보듬는 착한가게가 더욱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괴산군, 2019년 4단계 공공근로사업 시행

### 오는 12월 20일까지 ... 5개 사업장서 22명 군민 참여

괴산군이 저소득 고용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2019년도 4단계 공공근로사업' 시행에 들어갔다.

14일 군에 따르면 4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오는 12월 20일까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유기농생태체험관, 수목정 등 15개 사업장에서 진행되며, 22명의 군민이 참여한다.

특히, 군은 지역 일자리에 꼭 맞는 인력 선발을 위해 참여자가

직접 사업 분야를 선택·신청토록 한 뒤 해당 사업장에 배치했다.

또한, 대상자 선발 시 차상위계층, 여성세대주, 장기실업 및 휴·폐업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에게 가점을 부여해 일자리 사업 효과를 극대화했다.

군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어

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4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올해 마지막 단계로 진행되며, 내년 1단계 사업 참여자는 오는 12월 중 모집한다.

한편, 사업 참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 경제과 일자리창출팀(☎043-830-3325)이나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 보은군, 여성 소규모 사업장 안심비상벨 설치 추진

보은군이 여성 대상 범죄 및 폭력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20평 미만의 사업장 100개소에 경찰연계 안심비상벨 설치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보은군이 '아동·

여성안전 지역연대 회의'와 경찰서, 여성단체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사회 공감과 협조를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위기상황 시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면 112상황실로 자동 신고 되는 안심시스템을 구축하

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안심비상벨 신청을 원하는 여성사업장에서는 사업장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민원팀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신청 시 유의사항으로는 선착순 접수와 KT 유선전화기가 있는 사

업장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신청 접수된 사업장은 현장 방문 검증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되어 11월 말까지 각 사업장에 안심비상벨을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정상혁 보은군수는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보은군을 위해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진행하는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바라며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 괴산군 보건소, '임산부의 날' 캠페인 실시

괴산군 보건소가 '임산부의 날'(10.10)을 맞아 8일 괴산읍 시내버스터미널과 괴산전통시장 일원에서 캠페인을 펼쳤다. 군 보건소에 따르면 이날 캠페인은 저출산 극복과 임산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보호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은 군 보건소 직원 및 한자녀더욱기운운동연합 괴산군지부(지부장 이연숙) 회원 등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들은 지역주민들에게 군에서 추진 중인 모자보건사업, 출산장려지원사업 등과 관련한 안내문을 나눠주고, 모유수유 등을 적극 홍보했다.

'임산부의 날'은 매년 10월 10일



괴산군 보건소가 '임산부의 날'(10월10일)을 맞아 지난 8일 괴산읍 시내버스터미널과 괴산전통시장 일원에서 캠페인을 벌였다.

로, 임신과 출산을 사회적으로 배려하고 출산, 양육의 어려움을 해결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날이다.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의미하는 이날은 지난 200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4회째를 맞고 있다.

괴산군은 임신과 출산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모자건강증진교실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이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임산부를 우선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충북사회복지신문

### 광고 게재 안내

충북사회복지신문은 사회복지기관 및 관련단체, 시민단체, 병원, 학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일반시민 등 전국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이슈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싶은 분은 적극적으로 충북사회복지신문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면	크기	배색	금액(원)
1면	4단 (360mm×138mm)	컬러	300,000
	제호 옆 돌출 (67mm×33mm) (3개월)	컬러	100,000
2면~7면	4단 (360mm×138mm)	흑백	150,000
8면	4단 (360mm×138mm)	컬러	200,000

게재 개월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솔지 사회복지사 (T.043-234-0840~2)

# ‘배우자 출산휴가’ 이달부터 대폭 ↑ (3일→10일)

### ‘출산일에서 90일’ 청구 기간도 ↑ ... 중소기업엔 급여 지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과 별도 사용 가능

남성 직장인이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일부터 현행 3일에서 10일로 대폭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다음 달 1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현행 유급 3일(무급 포함 5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는 출산일로부터 30일까

지 가능하지만, 개정법은 이를 90일로 늘렸다. 휴가 기간의 1회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

유급 휴가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해 정부가 유급 5일분 급여를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신설됐다.

재정 여건이 좋은 일부 대기업은 10일 정도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은 현행법에 규정된 유급 3일만 허용하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

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와 급여 지급은 다음 달 1일 이후 처음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된다.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줄여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다음 달 1일부터 확대된다.

현행법상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해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개정법은 육아휴직을 1년 쓸 경우 이와 별도로 1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도록 했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 육아휴직을 쓰고 남은 기간 육아

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다.

육아휴직을 6개월 쓸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6개월 쓸 수 있다는 얘기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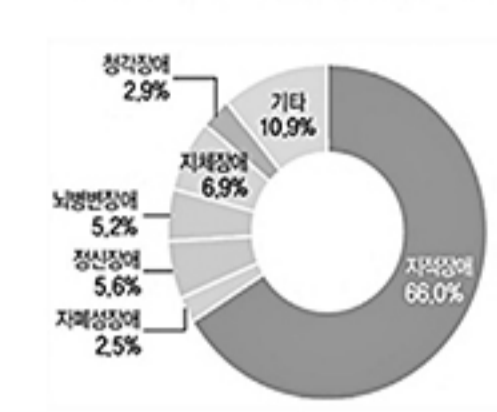
현행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하루 2~5시간 가능하지만, 개정법은 하루 1시간 단축도 허용한다. 2시간 이상 단축할 경우 1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 시간은 통상임금의 80%를 준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를 더욱 활성화해 사회 전반에 ‘맞춤’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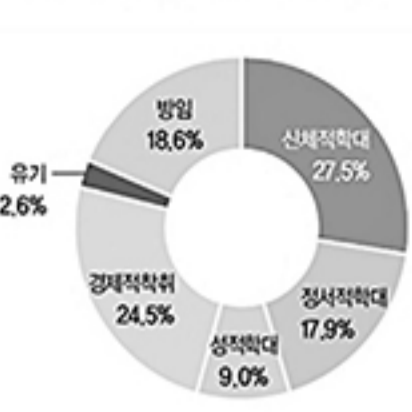
# “장애인 학대 가해자 40%는 관련 기관 종사자”

### 복지부 ‘2018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 첫 발간 이용인에 폭언·폭행 당하는 종사자도... 대책 마련 필요

< 학대 피해장애인 장애유형별 비중 >



< 장애인학대 유형별 비중 >



장애인 학대 사건의 가해자 10명 중 4명은 장애인시설 등 기관 종사자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해 전국에서 장애인 학대로 판정된 사례가 88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장애인학대 신고사건을 분석한 ‘2018년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17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들어온 전체 신고 건수는 총 3658건이었다. 이 중 학대 의심 사례는 1835건이었고, 조사 결과 실제 장애인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889건이었다.

장애인 학대 889건 중 828건(93.1%)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었으며, 61건(6.9%)은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았다.

피해장애인의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가 587건(66.0%)이었고, 다음으로 지체 장애 61건(6.9%), 정신장애 50건(5.6%) 등이었다.

장애인 학대로 판정된 889건의 학대 행위자 성별은 남성 573건(64.5%), 여성 310건(34.9%), 파악 안됨 6건(0.7%) 등이었다. 학대 행위자는 60대가 233건(26.2%)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30건(25.9%), 40대 143건(16.1%) 등 순이었다.

학대 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 관계의 관계를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이용시설, 교육기관, 사회복지 기관 등의 종사자에 의한 학대가 39.3%(349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가족 및 친인척 30.5%(271건), 타인(지인이거나 고용주, 이웃, 모르는 사람 등) 29.7%(264건)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 행위자가 가족이거나 친인척인 경우 부모가 12.9%(115건),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가 6.0%(53건), 배우자 5.8%(52건), 자녀 1.5%(13건) 등 순으로 높았다.

장애인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의 거주지가 35.0%(311건)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거주 시설이 21.9%(195건), 직장과 일

터가 12.3%(109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 의무가 없는 기관 종 장애인 학대 신고가 많은 기관 종사자(국민연금공단 활동 지원 업무 담당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 등)까지 신고 의무자 직군(현재 21개)을 확대하기로 했다.

2020년 1월 중으로 장애인 학대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학대신고(☎1644-8295)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13개소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권보호 방안 연구(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홍영진, 2018)’에 따르면, 이용인이 종사자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가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았다. 특히 직접적인 물리적 폭행으로 분류할 수 있는 목조르기, 주먹질, 발길질을 경험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 239명 중의 33.2%인 81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종사자들은 참고 넘기거나 주변 동료에게 하소연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마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언이나 폭행을 경험했을 때, 대응을 하지 않는 사유로는 이용인 경우 ‘대응해도 소용없기 때문(65.9%)’이 가장 큰 이유였다.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안전·인권 실태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인권보장을 위한 법률적 지원, 인권침해예방·대처·사후조치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위기청소년 전담 ‘시군구 청소년안전망팀’ 본격화

### 2020년부터 각급 지자체에 전담공무원 배치 여가부, 선도적 지자체 9개 선정 사업비 지원 학교·경찰 등 기관과 연계... 사각지대 ‘제로화’

여성가족부가 복합·심화하는 위기청소년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위기청소년 지원과 사후관리를 전담할 ‘시·군·구 청소년안전망팀’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군·구 청소년안전망팀은 전국 설치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2020년에는 우선 청소년 인구 5만명 이상인 시·군·구 등에 전담공무원 배치를 유도한다.

여가부는 2020년부터 시·군·구 청소년안전망팀이 원활히 설치되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고 우수모델이 확산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9개 지자체를 선정해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시스템’도 새로 구축하기로 했다.

청소년안전망팀의 본격적인 설치·운영에 앞서 올해부터 운영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은 전국 지자체 대상 공모를 통해 선정된 5개 지자체(서울 노원구·경기 수원시·부산 사하구·광주 광산구·전북 부안군)에서 12월까지 진행된다. 해당 지자체는 청소년안전망팀을 설치해 구체적인 운영시

스템을 적용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시·군·구 청소년안전망팀 운영은 발굴, 서비스, 지속관리 등 3가지 방향에 주안점을 둔다. 사각지대 없이 고위험청소년을 발굴하기 위해 경찰·법원 등과 정보를 연계하고, 지원 서비스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경찰·아동복지기관 등과 서비스 연계를 제도화하며, 위기종결 단계까지 지속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고위험청소년은 지자체가 직접 사례관리를 총괄한다.

청소년안전망은 위기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기관, 서비스, 정보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해 위기청소년들에게 상담·보호·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 복지 추진체계다.

그동안 지자체의 청소년안

전망 사업은 대부분 민간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230개소)를 중심으로 운영돼 학교·경찰 등 다른 기관과의 정보 공유나 서비스 연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속적인 관리·지원체계가 부재해 위기청소년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다.

여가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지역사회 내 위기청소년 발굴·지원·관리를 위한 지자체 중심의 공적 운영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방안’을 지난 5월 마련했다. 시·군·구 청소년안전망팀 설치는 그 대책의 일환이다.

한편, 여가부는 청소년안전망 추진체계를 개편 방향과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상담복지개발원과 함께 27일 오후 2시 부산광역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청소년안전망의 새로운 변화 모색’이란 제목으로 정책 포럼을 연다.

## 2025년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60조원’

### ‘고령화 사회’ 진입 따라 해마다 진료비 상승 폭 클 듯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들어서면서 2025년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6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추산 결과가 나왔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노인 진료비 증가추이’를 주제로 2018년 현재 31조5272억원인 노인 진료비는 2025년 57조9446억원, 2035년 123조288억원, 2060년 337조1131억원 등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건보공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출 추계모형을 토대로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18년 257만4000명으로 늘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유례없이 빠르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2%로 ‘고령화 사회’가 됐다.

2017년에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14.2%인 711만명에 달해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2025년에는 노인 인구의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에는 내국인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739만명으로 전년보다 28만명 늘어 ‘초고령사회’ 진입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20%는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 24일부터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 지원

이달 24일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법적 부부와 마찬가지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7일 그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만 난임치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던 모자보건법이 지난 4월 개정됨에 따라, 24일부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도 난임 치료 시술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실혼은 결혼

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정법에 따라 사실혼 부부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난임 시술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정부지원 금도 받을 수 있다.

난임시술을 받으려 하는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

는 서류 외에 시술동의서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을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들 서류는 당사자가 다른 사람과 법률혼 관계가 없는지 확인하고, 거주지와 1년 이상의 동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원, 정무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된 판결문이나 공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입증 가능한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혼인관

계를 유지하였음을 보증·서명 한 문서를 공문서 대신 제출하면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발급받은 보건소 결정통지서를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난임 치료 시술과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사실혼 부부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라면, 최대 50만원 범위에서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실혼 난임부부에 대한 확인 문의를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 1. 지역사회봉사단이란?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 2. 봉사단 위촉 기준

VMS 가입 5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단체

### 3. 봉사활동 분야

구분	내용
기술·기능	디자인, 벽화봉사, 전기·가스점검, 집수리, 도배, 기능전수 등
상담·정보	법률 및 세무상담, 아동·청소년 등 상담(멘토링), 취업, 창업 등 각종상담 및 정보제공
운영·지원	재활도우미봉사, 재가대상·방문봉사, 행사, 프로그램보조봉사 등
문화·예술	음악, 연극, 무용공연 등 공연봉사, 지역문화축제, 지역주민 대상 행사진행 등
교육·학습	나눔·경제교육, 장애인·저소득층을 위한 수학, 영어, 국어, 한문 등 학습지도
노력·행정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노력봉사, 청소봉사, 행정 및 사무지원 등
보건·의료	무료진료, 호스피스, 간병, 위문, 운동보조, 병원입문보조 등
교통·환경	교통정리, 차량이동봉사, 지역환경 개선, 재활용 및 환경관련 캠페인 봉사 등

### 4. 봉사단 혜택

- 활동재료비 일부 지원(중복지원 불가, 충북사회복지자원봉사대회 참석)
-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VMS, 복지넷)
- 참여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및 홍보

### 5. 신청 및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부  
김민지 코디네이터

전화 043) 234-0840  
홈페이지 www.cwin.or.kr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 청주복지페스티벌 '복지꽃이 피었습니다'

복지페스티벌추진위원회 주관 문암생태공원 일원서 열려  
18~19일 사회복지 퍼포먼스·박람회 등 볼거리 다양

청주복지페스티벌 "복지, 꽃이 피었습니다."행사가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청주 문암생태공원에서 열렸다. 청주복지재단(이사장 한범덕), 청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안종태),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응모), 청주행복네트워킹(센터장 김창수) 4개 사회복지기관이 주관하고 LS산전에서 후원하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행사로 지역사회민·관이 함께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 시키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활동을 격려하고자 진행됐다. 18일은 "청주시 커뮤니케이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복지세미나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사례 발표"등 주민조직 워크숍 그리고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는 기념식과 유공자 표창, 축하공연 등 "제5회 사회복지대회"를 진행했다. 이어 19일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관련 프로그램과 정보 제공 및 체험, 홍보 부스 운영, 가족 명랑운동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복지박람회"를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이들간 진행된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정보를 제공하고 직접 참여하여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시민들



18일 2019년 청주복지페스티벌-제5회 청주시사회복지대회를 기념하여 청주시 사회복지 유공자 23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의 복지체감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라며, 지역 내 사회복지관련 유관 기관들이 공동체로서 청주 사회복지의 꽃을 피우는데 앞장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가 리솜포레스트에서 '자원봉사자 보수교육 및 역량강화 워크숍'을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각지대 발굴 협약

지난 11일 리솜포레스트서 워크숍... 효과적 자원 봉사 위해 마련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양순경)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1박2일의 일정으로 리솜포레스트에서 '자원봉사자 보수교육 및 역량강화 워크숍'을 가졌다. 자원봉사자들의 효과적인 자원 봉사 활동을 위해 마련된 이번 위

크숍은 1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워크숍을 통해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 11개 봉사단체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자원봉사자

의 스트레스 관리 및 소진예방을 위한 교육, 자원봉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각지대정보 보는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등의 봉사자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뤄졌다. 양순경 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마인드 향상과 소진예방, 역량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노후 준비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 41.4%로 1순위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일간 일반패널 대상 설문조사  
젊은 20대에서는 개인저축 1위·공적 연금 2위 차지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센터장 이희정, 이하 센터)는 노인의 날(10.2)을 기념하여 충북도민의 노후생활 준비 인식을 주제로 8월 19일부터 9월 18일까지 총 30일간 충북의 일반패널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노후생활을 위한

가장 큰 준비로는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 41.4%로 분석되었다. 노후생활 준비방법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41.4%, 저축, 개인연금, 개인 투자 등 개인적인 준비가 49.0%로 분석, 노후준비 방법

에 30대에서 50대 이상은 1순위가 공적연금, 2순위가 개인저축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학생 혹은 사회초년생이 많은 젊은 20대에서는 다른 연령과 다른 결과를 보임, 1 순위가 개인저축, 2순위가 공적 연금으로 나타났다. 노후를 위한 주요 국가정책으로는 연금(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38.7%, '노후 소득보장(일자리 제공)' 29.3%, '의료, 진료비 지

원' 18.4%, '돌봄, 요양 서비스' 7.4%, '노인복지시설 등의 확충' 5.9%, '기타' 0.3%로 분석되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교육 기회가 많은 지에 대한 질문에 '그런 편이다' 35.2%, '보통이다' 29.3%, '그렇지 않은 편이다' 18%, '매우 그렇다' 14.8%, '전혀 그렇지 않다' 2.7%로 분석 되었다. 충북은 노인이 스스로 살아가기에 좋은 환경이라는 응답이 55.1%, 노인이 사회적으로 존중 받는다는 느낌은 47.3%,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라는 인식은 60.5%로 분석 되었다.

## 마음의 병 '관계중독'이란 무엇일까?

충북소셜리서치센터 충북NGO 센터서 토론회 개최



9월 24일 충북소셜리서치센터는 충북NGO센터 대회의실에서 '관계중독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내면의 공허함을 타인과의 관계에 집착하는 심리적 질병인 '관계중독'에 관한 의미있는 토론회가 열렸다. 충북소셜리서치센터는 지난 9

월 24일 충북 NGO센터 대회의실에서 '국내 관계중독 연구 현황과 향후 방향-관계중독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준환 충청대학

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송현정 마음자리심리상담연구소장이 발제를 통해 관계중독의 개념과 국내 관계중독의 연구 현황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김경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충북센터 센터장, 고숙남 휴심리상담소 소장, 박상규 꽃동네대 사회복지상담심리학과 교수, 황명구 충청북도 사회복지정책보좌관이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송 소장은 "이번 토론회는 관계중독이 우리 사회 중요한 사회문제와 위기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사회적 관심도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자리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 진천군노인복지관 증축 준공식 개최

예산 16억원 투입... 3층 증축·345.6㎡ 공간 추가 확보

진천군이 지난 9월 27일 진천읍 읍내리에 위치한 노인복지관 증축 준공식을 개최했다. 준공식은 송기섭 군수를 비롯해 박양규 진천군의회의장, 경대수 국회의원, 임영은 도의원, 이수완 도의원 및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진천군노인복지관 증축 사업은 총 예산 16억원(국비 7억 군비

9억)이 투입돼 추진됐으며, 주건물에 잇대는 방법으로 3층을 증축해 345.6㎡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군은 그 동안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원활한 복지서비스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이번 공사를 통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노인복지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



송기섭 군수를 비롯해 각 기관단체장이 참석하여 진천노인복지관 증축 준공테이프 커팅식을 갖고 있다.

린다는 계획이다. 송기섭 군수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이 다소 협소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마음 한켠이 무거웠다"며 "복지관 증축으로 여여 공

간을 확보해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선보일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더 나은 노인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청주노인복지센터 '통합 돌봄 협동화 사업' MOU

가톨릭청소년센터서 하나건축 등 9개 기관과 협약



8일 청주노인복지센터는 서비스사회적경제조직 등 9개 기관과 '마을단위 통합 돌봄을 위한 협동화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주노인복지센터(센터장 백수현)는 8일 가톨릭청소년센터에서 충북주거복지센터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김덕수), 청주시주거복지센터(센터장 한정현), 하나건

축(대표 김현미), 충북청주지역자활센터(센터장 이선재), (주)휴먼케어(대표이사 송유정), (주)보듬아동가족통합지원센터(대표 최순복), 중앙동행정복복지센터(동장

이현중), 중앙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김범제), 청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등이 참석하여 마을단위 통합 돌봄을 위한 협동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9년 기획 사업으로 선정된 본 사업은 상당구 지역 노인들의 다양한 돌봄 욕구에 대한 필요서비스를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영양, 돌봄, 정서, 이동, 주거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청주노인복지센터(센터장 백수현)는 "본 사업의 취지가 청주시 상당구에서 모범적으로 구현 되도록 사회적 경제 조직 및 관련 기관들과 유대를 강화하고 한뜻으로 나아간다"고 말했다.

## 청주시 '정신건강의 날 기념 행사' 성료

상당구청 대공영장서 개최... 유공자 표창 수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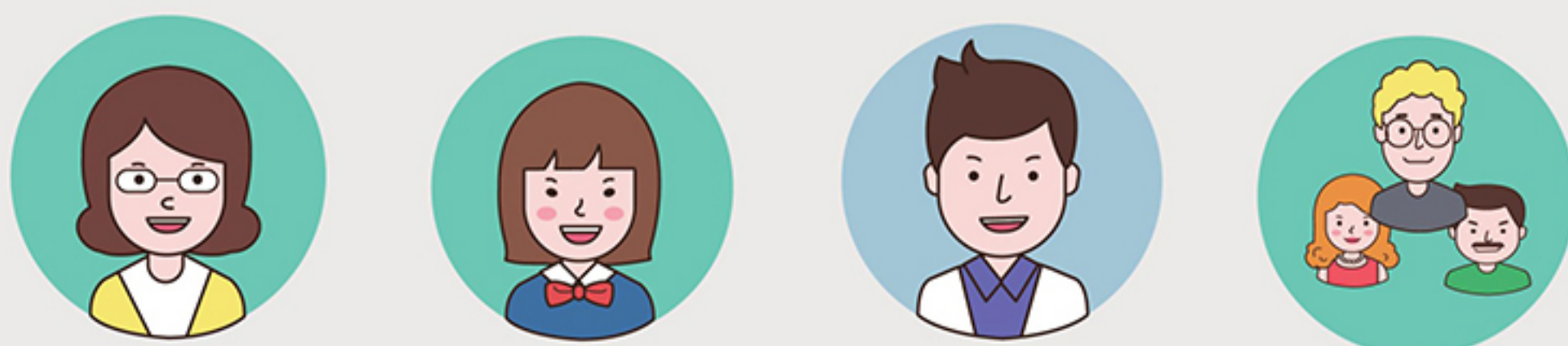
2019년 '정신건강의 날'을 맞이하여 10일 상당구청 대공영장에서 청주시민들을 대상으로 '청주시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이번 행사는 청주시 4개 보건소가 주최하고 4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관했으며 관계자 및 일반 시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는 극

단 '돌봄'이 이번 행사를 위해 창작한 "나는 아직 괜찮습니다" 연극을 상연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줬으며,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사업에 1년 이상 참여해 시민의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 수여도 함께 진행됐다. 안자경 청주시 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청주

시민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해소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소중함을 다시 일깨울 기회로 삼아 '함께 웃는 청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충북 내게 꼭 맞는 사회복지정보를 한눈에!



정답은 **충북복지넷!**

www.043w.or.kr



#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 내년부터 맞춤형 제공 실시

## 6개 노인돌봄사업 통합·개편... 개인마다 제공 (대상자 35만 명 → 45만 명으로 확대)

### 기존 서비스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새롭게 이용 가능, 신규 신청자는 3월부터 신청 접수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지립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를 통합·개편해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중인 35만 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되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규신청은 2020년 3월부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예정이다.

#### ■ 기존 장기요양서비스의 문제점 개선·통합

그간 신체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지만, 장기요양등급자가 아닌 경우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더라도 이용신청이 어렵거나,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개편해 서비스 내용을 다양화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2020년 1월부터 제공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로 서비스 이용을 편리하게 할 계획이다.

실시간 확인(모니터링) 외에도 태블릿 PC를 통해 다양한 보건·복지 정보, 생활정보, 지역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으며, 건강운동·인지활동 프로그램 등의 콘텐츠를 활용한 건강관리도 가능하다.

#### ⑤ 생활권역별 수행기관이 책임 운영된다.

기존에는 실질적인 생활권역과 상관없이 기초자치단체별 1개의 수행기관을 두어 서비스의 접근성이 낮거나, 이용권(바우처)로 제공하는 경우 민간기관(2,814개)에서 서비스를 제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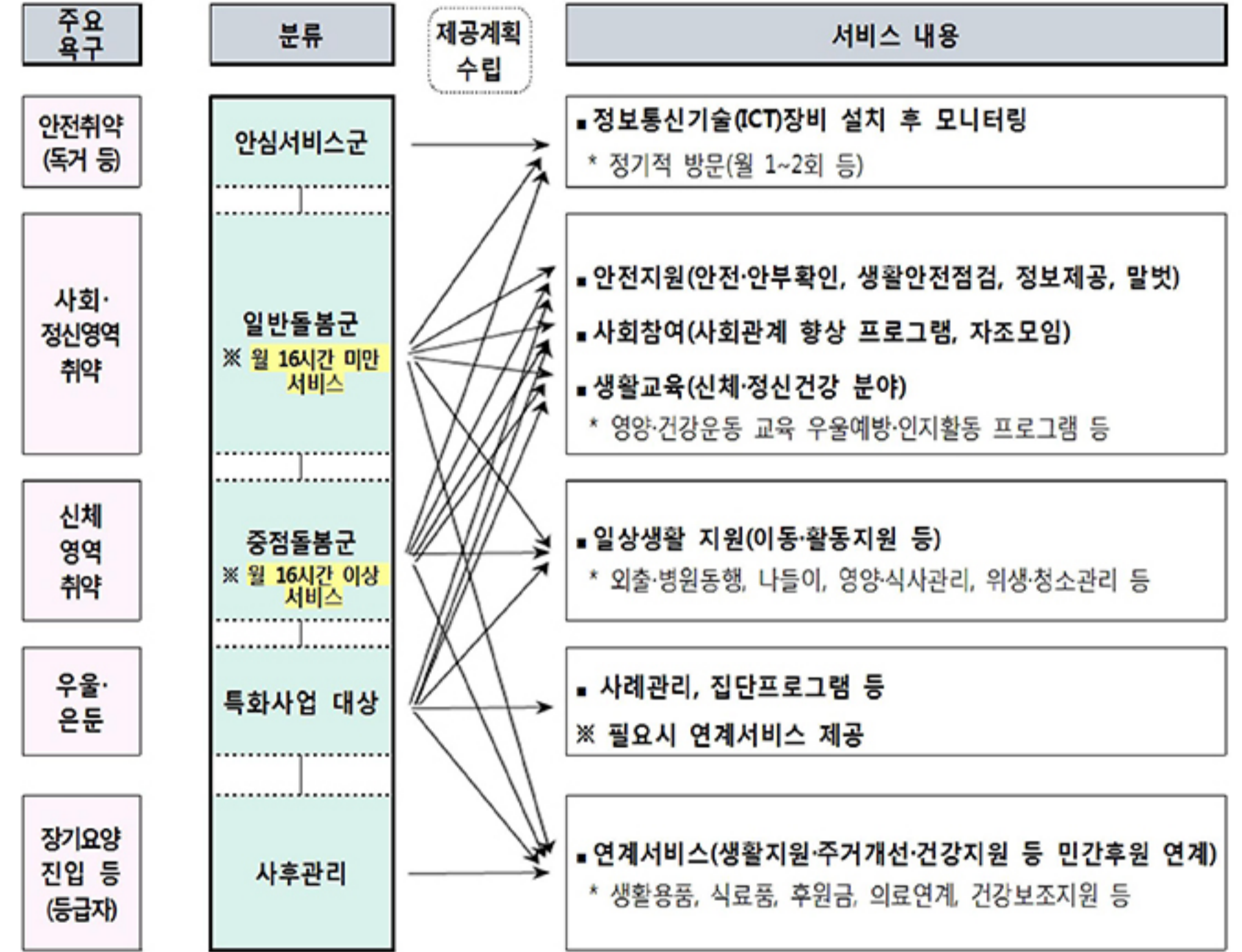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자체별 권역을 구분해 지자체가 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권역설정으로 어르신들은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권역별 노인돌봄 수행기관과 서비스에 대한 지역 노인들의 인지도를 높여 서비스를 몰라서 못 받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노인돌봄 수행기관이 지역 노인복지서비스 민간전달체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노인돌봄사업 >

사업명	조건	대상자(명)	서비스 내용	제공인력	제공기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 독거	29.5만	안부확인 및 후원연계 (주1회 방문, 주2회 전화)	서비스관(531명), 생활관리사(11,269명)	244개소 (복지관 등)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 장기요양 등급외 A-B	4.8만	가사지원 (월 9회 또는 12회 1회 3시간)	노인돌보미(26,664명)	2,129개소 (재가노인 복지시설, 복지관 등)
단기가사 서비스	→ 수술 후 퇴원	0.1만	가사지원 (1일 최대 3시간, 2개월 이내)	노인돌보미(1,518명)	685개소 (복지관 등)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 우울·은둔	0.7만	사회관계 활성화 프로그램 (친구만들기 자조모임 등)	전담인력(115명)	115개소 (복지관 등)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 초기 독거 (사별 등)	0.1만	자립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 (개인·집단프로그램)	전담인력(10명)	10개소 (복지관 등)
지역사회 자원연계	→ 장기요양 등급 또는 등급외 A-B	0.7만	지역자원 연계 (의료·복지 등)	전담인력(44명)	22개소 (재가노인 복지시설 등)

< 개편 후 노인돌봄사업 >



내년부터 추진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수요자 중심의 노인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① 사업 통합으로 서비스 종류 다양해진다.

기존 개별 사업체계에서는 중복 지원이 금지돼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어, 필요한 돌봄 욕구를 모두 충족할 수 없었지만, 향후 사업 통합으로 필요에 따라 안부확인, 가사지원, 병원동행, 자원연계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② 가구방문 서비스 이외에도 참여형 서비스가 신설된다.

찾아가는 서비스 외에도, 건강과 기능상태 악화를 예방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을 위해 어르신들이 집 밖으로 나와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참여형 서비스로는 평생교육활동, 문화여가활동, 자조모임, 신체·정신 건강 프로그램 등이 있다.

#### ③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이뤄진다.

다양해진 서비스가 개인별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 선정조사와 서비스 상담을 거쳐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한다. 노인의 주요욕구에 따라 대상군을 분류해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범위가 정해진 후, 개인별 돌봄필요에 따라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서비스 양이 정해진다.

#### ④ ICT기술을 활용한 첨단 서비스가 도입된다.

기존 응급안전알림서비스(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에 속하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댁내에 가스·화재·활동감지 센서와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해 응급상황 발생 시 이를 알리고 119 자동신고를 통한 신속한 구조·구급 지원) 사업은 가스탐지기, 화재탐지기 센서 등을 설치해 사고에만 대응하는 한계가 있었으나, 내년부터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첨단 장비를 도입하면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운영연계를 통한 안심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를 통해 건강 악화와 고독사 위험 등 응급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 가정에 첨단 감지기(센서)와 태블릿 PC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확인(모니터링)한다.

평소 생활 방식을 기록하고 이에 벗어나는 이상행동이 발생(활동시간 범위 내에 장시간 움직임이 없는 등)하면 담당 생활관리사에게 해당 정보가 전송된다.

생활관리사는 대상 어르신과 연락을 취해 안전·안부를 확인하며, 응급시 관내 소방서에 신고하여 대응한다.

노인돌봄사업의 개편 후 변화 모습. 가장 큰 문제였던 어려운 이용신청, 다중 서비스 이용 불가 등을 개선하고 다양한 분류의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이와 같이 변화한 내용을 적용하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아 이용을 한층 편리하게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671개의 권역(안)을 정해 지자체는 권역별 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를 10월 초부터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별 권역은 최소 1개, 최대 13개로 1개의 권역을 지정할 곳은 지자체의 면적이 좁으면서 노인인구가 적은 곳 이 대부분이나, 일부 지역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 불가피하게 1개 권역만 설정됐다.

#### ⑥ 은둔형, 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사업이 확대된다.

2014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은 사회관계가 특히 취약한 독거노인에게 개인별 사례관리를 통해 사회적 교류를 지원해 고독사와 자살예방, 우울증 경감을 위한 상호 돌봄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독거노인의 고독감, 우울감, 자살생각 등을 경감하고, 1명 이상의 친구를 만드는 등 사업의 효과가 확인되는 한편, 65세 이상의 자살사망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특화사업으로 전국 도시지역 중심으로 200개 수행기관(152개 시군구)으로 확대(현재 115개)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화사업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중 우울형 노인, 은둔형 독거노인 등을 지역에서 발굴해 개인별 사례관리와 집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번에 발표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며 기존 노인돌봄서비스 참여자 35만 명은 별도 신청 없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어서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신청은 3월부터 가능하다.

신규신청자는 내년 3월부터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세부적인 안내는 내년 초 별도로 다시 이뤄질 예정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대상자적은 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독립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다. 신청 후 서비스 대상 선정 조사를 통해 대상으로 선정된 후, 서비스제공계획이 수립된다.

다만,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75세 이상 고령부부 노인가구로서, 골절·관절증, 척추병증 포함-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에게는 필요에 따라 월 최대 20시간의 가사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며 이러한 경우 예외적으로 1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를 기존보다 10만 명 늘린 45만 명 규모로 제공하기 위해 2020년도 정부예산안 3728억 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복지광장



김준환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장

문재인정부는 '포용국가'라는 국가비전을 발표하여 사회적 약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다함께 잘사는 나라, 사회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행하려 하는지, 그리고 수행과정과 전망을 살펴본다. 커뮤니티 케어는 많은 국가들이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지양과 병행·시설 중심 서비스만으로는 개인의 삶의 질 저하와 고령화에 따른 의료 돌봄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서 시작되었다.

체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셋째,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계획되고 전달되도록 전달체계의 개편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정신건강

자살, 개인의 선택인가? 질병인가?



연현진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오늘은 여러분들과 자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자살, 개인의 선택인가? 질병인가?

명을 굶아먹기 때문이죠.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정신분열병) 등의 정신질환 역시 사람의 기대 수명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모지혜 충북 하나센터 사회복지사

북한이탈주민 3만명을 넘어선지 2년이 지났다. 최근에는 북한이탈주민을 소재로 한 예능 및 다큐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는 것 같다.

에 온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을 초기 집중교육을 진행하다가 지금은 사례관리를 주업무로 맡고 있다.

이 많다. 안됐다. 불쌍해서 어쩌냐. 은연중에 내가 도움을 미치면 엄청나게 고마워 할 거라는 당연한 반응에 대한 생각을 심플리 하게 된다.

나는 이런 태도가 인식개선의 시작이라고 보았다. 사회복지사는 마냥 착하고 헌신하는 편견 없는 직업군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내담자들에게 마냥 착하고 헌신하다가는 본인도 소진이 올뿐더러 내담자에게 '자립'이라는 보물 같은 잠재성을 망치기 쉽다.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법

Advertisement for 'Lawyer's New View' (법률복지의 새 장을 여는) featuring 'Free Lawyer Doctor' (무료 법률호닥터) service. Includes details on support content, service target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Chungcheongbuk-do Social Welfare Association.

이 달의 법률상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라혜영 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과)

Q. 저는 얼마 전 청주에서 서울로 이사온 학생입니다. 원룸 전세를 알아보다가 위치도 괜찮고 깨끗한 신축 원룸을 소개받고 계약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여 보니, 원룸 시세가 1억1,000만원 정도 하는데 8천만원의 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근저당권 설정일은 2019년 1월 1일입니다. 제가 이 원룸을 보증금 3,500만원에 임대차계약 체결하려고 하는데 이미 설정된 근저당액수가 적지 않아서 불안합니다. 원룸을 위 조건으로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소위 말하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목적부동산이 경매 등으로 넘어가는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영세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이 특별히 규정한 권리입니다. 다만 이는 지역별로 소액임차보증금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를 받는 금액이 상이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구체적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위의 사례에 나오는 서울의 경우는 1억 1,0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가 소액임차인이 되고, 최우선받을 수 있는 금액은 3,700만원입니다(2018.9.18. 이후 기준).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소액임차인의 요건

을 충족하므로 3,700만원 한도에서는 다른 담보권자보다 최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즉 보증금 전액(3,500만원)에 대하여 최우선변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최우선변제의 기준 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등)의 설정일자 기준입니다. 즉 위 근저당권 설정일인 2019.1.1.이 기준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근저당권 설정일이 2018.1.1.이라면 개정 전의 규정이 적용되어 3,400만원 한도에서만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소액임차인은 경매개시 결정등기 이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주택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복지정보 제공

[희망나눔 주주연대] 희망나눔 의료/생활비 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저소득층으로 환아가 있는 사회적·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가정(소득수준의 경우 차상위계층 포함)
- 청소년 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 신청기간: 상시
■ 신청방법: 본 기관 홈페이지 신청접수(홈페이지 상단 '희망나눔' - '사업제보 및 후원신청'을 통한 제출)
■ 제출서류: https://www.bokji.net 홈페이지 참조
■ 심사 및 선정절차: 추천 및 신청(접수 및 심의(후원 및 사례관리(돌봄)
■ 문의: 희망나눔 주주연대 / ☎ 02-3789-2555 / 이메일: hope@hopeon.or.kr
■ 참고: https://www.bokji.net

[한국사회복지관협회] 2019년 '은둔환자 의료지원사업'

- 사업기간: 2019년 ~ 2022년
■ 사업대상: 전국 사회복지관
■ 지원대상: 화상, 고도비만, 기형 등 외형적인 신체질환으로 사회생활을 기피하게 된 대상자
■ 지원내용: 외형적 신체질환 및 정신건강 치료, 사회복지활동 지원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안내문 참조)
■ 신청기간: 수시 진행(매월 대상자 모집 및 심사 진행 예정)
■ 기타
- 붙임문서 우리 협회 홈페이지(www.kaswc.or.kr) 복지정보-사회복지소식에서 다운로드
■ 문의: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은둔환자 의료지원사업 담당(전화: 070-7017-6623)

[신한금융그룹] 위기가정 재가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매월 1일 ~ 20일, 연중상시 진행

- 시 진행
■ 후원처: 신한금융그룹
■ 사업지원기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사업기간: 2018년 5월 ~ 2021년 4월 (상시신청)
■ 신청대상
-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위기상황에 처한 개인 및 가정
-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운 개인 및 단체
■ 신청기준: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매년 보건복지부 발표)
■ 신청방법: 거주지역 내 신청기관을 통해 신청(개별신청불가)
\* 신청기관: 굿네이버스 사업장, 사회복지유관기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공공기관, 병원, 학교 등 (단, 지원금 관리 등 사례관리 가능기관)
■ 지원항목: 홈페이지 참조
■ 문의: 위기가정 재가지원 사무국(월~금 10:00~17:00, 02-6424-1551)
■ 참고: www.shinhanhope.com

[KT&G복지재단] 2019년 '상상편의의료복지지원(아동) 신청안내'

- 신청기간: 매월 1일 ~ 20일, 연중상시 진행
■ 신청대상: 사회복지기관에 소속된 만 18세 이하의 저소득(차상위, 수급, 일반저소득) 아동·청소년
■ 지원내용: 치료비·수술비·재활치료비·보장구 구입 등 의료에 관해 병명 제한 없음. (단, 간병비 제외)
■ 지원금액: KT&G 임직원 모금을 통해 최소보장지원금 300만원 ~ 최대 500만원 지원
■ 선정방법: 매월 마지막 주 발표
■ 신청방법: 매월 20일까지 온라인 사연신청
- 온라인 사연신청: 재단홈페이지(www.ktngwelfare.org) > 사업안내 > 인터넷복지사업 > 상상편의

의료복지지원사업) 사업안내 웹 페이지 하단의 [의료복지지원 신청] 버튼 클릭

- 참고: http://www.welfare.net

[KT&G복지재단] 2019년 행복가정학습지원(아동) 신청안내

- 신청기간: 매월 1일 ~ 20일, 연중상시 진행
■ 신청대상: 아동·청소년사업 수행중인 사회복지기관에 소속된 저소득(차상위, 수급, 일반저소득) 가정의 학령기 아동·청소년 (만7세 이상 ~ 만18세 이하)
■ 지원내용: 학습과 관련된 물품 구입비 10만원 지원
■ 지원가능물품: 학습용품, 문제집, 일반도서, 교복, 책가방, 체육복(학교지정), 실내화 등
■ 선정방법: 매월 마지막 주 발표
■ 신청방법: 매월 20일까지 온라인 사연신청
■ 참고: http://www.ktngwelfare.org/business/happy

[KT&G복지재단] 2019년 캥거루의료복지지원(성인) 신청안내

- 신청기간: 매월 1일 ~ 20일, 연중상시 진행
■ 신청대상: 의료비가 필요한 저소득 2인 이상 가구의 가장 또는 보호자(20세 이상 성인)
■ 지원내용: 치료비·수술비·재활치료비·보장구 구입 등 의료에 관해 병명 제한 없음. (단, 간병비 제외)
■ 지원금액: 온라인모금액을 수어·전자·블링그림타기게임 점수후원액과 합산하여 지원되며, 최대보장금액은 100만원으로 지원됨.
■ 선정방법: 매월 마지막 주 발표
■ 신청방법: 매월 20일까지 온라인 사연신청
■ 참고: http://www.ktngwelfare.org/business/kangaroo

지역사회봉사단

다사랑회, 한글·한자 교육 봉사활동 진행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 소속 다사랑회(회장 김정숙)는 지난 10월 14일 청주시 우암동 평화 상가 새로운교회 도서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글과 한자 교육을 하였다. 다사랑회는 2013년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위촉되어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김정숙 회장은 "매주 활동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배움에 즐거움을 느끼시는 대상자분들이 삶의 원동력이 된다면 앞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보탬이 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입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봉사활동이 가능하다.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충청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유선(043-234-0840~2) 또는 이메일(cbssn@naver.com)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자원봉사 콘텐츠 공모전

별별 別別 자원봉사 10. 1. (화) ~ 11. 8. (금)

Table with 2 columns: 공모대상 (충청도민 누구나), 공모분야 (3개 분야(사진, 수기, 그림)), 접수기간 (2019. 10. 1. (화) ~ 11. 8. (금)), 접수방법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제출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cbssn@hanmail.net)), 결과발표 (2019. 11월 중(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시상내역 (구분, 인원, 금액) table.

Table with 2 columns: 분야, 제출항목. 사진: 1인칭 2점까지 가능, 사진용량 20MB 이하, 최소 2000\*1500픽셀 이상, 파일명: 1인칭\_2019\_10\_1\_1.jpg, 해상도: 300dpi 이상, 원본파일 및 사진속상(인물)이 없는 경우 용무 불가, 본인외 촬영한 작품, 사진촬영 시기: 2017년 ~ 2019년, ※ 촬영지 확인 불가능시 접수 불가, 후속 촬영시기가 다른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아날로그 사진은 원본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수기: 1인칭 2점까지 가능, A4용지 2매 이상, 작성방법: 글자크기 16Point, 줄간격 150%, 파일명: 수기\_2019\_10\_1\_1.docx, 그림: 1인칭 2점까지 가능, 형식: 수직형 그림, 문서, 포스터, 일문 등, 자유롭게 표현, 원본그림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문의처: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043-225-1365)

복지/만/평

공감능력

이창신 www.bokmani.com



자원 봉사자 모집

- ▶ 캠페인 행사 보조
관리센터: 청주청소년쉼터
활동기간: 10.1 ~ 11.30
전화번호: 043-231-2676
▶ 구연동화 및 말벗상담
관리센터: 충북복지연합요양원
활동기간: 10.1 ~ 11.30
전화번호: 043-235-6988
▶ 이미지 봉사
관리센터: VIP요양원
활동기간: 10.1 ~ 11.30
전화번호: 043-253-9988
▶ 영어, 중국어 통역봉사
관리센터: 목령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10.1 ~ 11.30
전화번호: 043-216-3060

- ▶ 경로식당 봉사
관리센터: 충주시노인복지관
활동기간: 10.1 ~ 11.30
전화번호: 043-724-3345
▶ 초등학생 학습지도
관리센터: 미라클지역아동센터
활동기간: 10.1 ~ 11.30
전화번호: 043-296-1003
▶ 발달장애인 적응지원 프로그램 보조
관리센터: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
활동기간: 10.1 ~ 11.30
전화번호: 043-295-2505
▶ 업무보조
관리센터: 청주시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활동기간: 10.1 ~ 11.30
전화번호: 043-291-0199

- ▶ 도서관 도서 정리
관리센터: 충청북도교육도서관
활동기간: 10.1 ~ 11.30
전화번호: 043-267-4590
▶ '세발자전거' 멘토 모집
관리센터: 어린이재단 청주사회복지관
활동기간: 10.1 ~ 11.30
전화번호: 043-250-1226

\* 자료출처: www.vms.or.kr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연중
전화번호: 043-234-0840~2
\* 자료출처: www.vms.or.kr